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여전히 욕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욕망하지 않고 인간은 살 수 없다는 생각 또한 자연스럽다. 욕망을 자기보존의 조건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욕망을 삶의 원동력이며, 자기보존을 위한 것으로 보는 태도는 자칫 무조건적인 욕망의 충족 능력에 대한 맹신을 초래하기 쉽다. 여기에서 욕망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충족 후에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좇는 악순환이 구조화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욕망의 충족 능력이 미약이 되고 무능력은 악덕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태도가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각자가 앞세우는 자기보존 욕망이 과도해질 때 공동체의 삶은 더 이상 삶을 보존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면서 삶은 아반과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자기보존 욕망은 항상 지성적 반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기보존 욕망을 철학의 주제로 끌어올린 철학자로는 범신론을 말한 베네딕투스 스피노자(1632-1677)

자유와 예속, 자기보존 욕망에 대한 태도

가 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스피노자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이 지니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드러낸다. 철학과 삶, 삶과 실천, 사유와 행동 그리고 관념과 실제 사이에 놓인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두려움 없이, 겸손하게 하나로 합일함으로써 지성의 힘과 자유의 가치를 말한다.

스피노자에게 인간의 본질은 욕망 그 자체다. 누구나 자신을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며 이 욕망은 감정과 이성을 다 포함한다.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코나투스'다. 욕망은 곧 인간이며 삶의 동력이기에 감정과 이성, 정성과 몸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어두운 지하에 축색을 채워 두었던 욕망을 세상 밖으로 해방시킨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는 스피노자를 철학을 해방시킨 '철학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욕망은 동물성의 증거이자 수치이며 죄의 근원이었다. 당시의 눈으로 보면 스피노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범죄자인 탓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예 영구 추방되는 벌을 받았다. 누구도 스피노자와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들어서도 안 되며, 그의 책을 읽는 것도 금지되었다. 스피노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잠잘 때마저도 끊임없이 '저주당하는' 것만이 허락되었다.

이후 그는 바위히 스피노자에서 베네딕투스 스피노자로 이름을 바꾸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수 자리를 거절한 채 평생 안경 렌즈를 닦으며 살았다. 교수 자리를 거절하는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저를 움직이

는 것은, 좀 더 나은 지위에 대한 열망이 아닙니다. 평안에 대한 사랑이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스피노자는 구속 대신 자유를 통해서 자기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성적 성찰이 없는 자기보존 욕망은 다른 이름으로 위장돼서 표출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성의 힘을 빌릴 때 욕망의 실체는 애써 '멈추지 않고도' 쉽게 드러난다. 화려하고 현란한 말 잔치 사이에 숨겨진 우월의 식과 자기죄면엔 걸린 송고한 사명감이 그 특징이다. 자신들의 삶과 삶이 뒤섞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서로에게 예속을 요구하는 것을 스피노자는 '허영을 위한 예속'이라고 말한다.

수동적인 감정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며 관계를 해체하게 하는 감정이다. 구도자와 연예인의 야누스 얼굴로 대중의 구원에 나서고, 통찰 없는 궤변으로 계몽자의 권력을 탐하며, 정치적 수사를 의미 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들이 본래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다시 묻게 된다. 이 예속의 상태는 어떻게 가능한가? 스피노자는 우리가 미신에 자주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신은 자유라는 더 큰 완전성으로 나가는 지성이나 이성과는 반대의 길이다. 수동적인 감정과 복종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미신이 생겨나고 예속이 일어난다. 자유와 예속의 거리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혼동하기 쉽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삶 그 자체로서의 자기보존 욕망은 자유와 예속이라는 두 갈래 길을 내민다. 그리고 선택은 항상 우리의 몫이다.

기고

농산어촌의 변화, '2020 농림어업 총조사'로부터

를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지난 11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를 보면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점차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2019년 농가의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어업의 현실도 농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장 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 등 수산물 생산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기 넘치던 어촌과 항구는 점점 활력을 잃어 가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르네상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새롭게 소개된 정책으로, 공간 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을 재생시켜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만들고 스마트팜,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경제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다.

더불어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어촌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환경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농정 및 농어촌 경제·사회의 구조가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농어업통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서는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발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 총조사, 농작물 생산 조사, 어업 생산 동향 조사 등 다양한 농어업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중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2020 농림어업 총조사'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이 조사는 모든 농림어업 관련 통계의 근간이 되는 조사로 농림어업 가구의 규모·분포·구조 및 경영 형태 등을 파악하여 여러 조사의 모집단의 기초가 되며, 우리나라 농림어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조사 항목이 많고, 주응답층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아 비대면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12월 1일부터는 방문 조사도 실시한다.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린다.

이번 조사 결과는 농림어업인 뿐만 아니라 귀농을 꿈꾸는 도시인, 농산어촌에 희망을 두는 청년,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농림어업의 변화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란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書)이 지났다. 이맘때면 본격적인 월동 준비와 함께 김장철이 시작된다. 어린 시절 시골집에서는 겨우내 먹을 김장과 함께 시래기를 엮어 달고 무말랭이를 말리며 소박이로 쓸 벚꽃을 모아 두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서로 김장 풋잎이를 하며 이웃과 정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보기 힘든 풍경이 되어 버렸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농업·농촌 관련 연구에 의하면 식량 안보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농업·농촌이 예전처럼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농업·농촌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도시민들의 긍정적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시름이 더욱 깊어졌으며,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의 고령화, 경지 면적의 감소 추세 등은 농업의 미래

기고

광주·전남 통합 논의,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

통합에 대해 논의 중이나 양 시도의 이해관계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 통합은 한 쪽의 일방통행 논리와 다수결로 성사되는 사안이라라는 얘기가.

통합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양 시도가 통합뿐 아니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 공동체,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도 좋을 것이다. 단편적인 시도 통합이 전부인 양 접근하는 논리는 행정 통합이 수단이라닌 목적이 되는 주객전도의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남부경제권 추진 영호남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사도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 분권 및 주민 자치 실현 방안으로 행정 통합의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경북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광주·전남이 나아가 길에 대해 가능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논의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어떠한 관여도 있어서도 안 되며, 어느 한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통합 논의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통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원에서 마련해야 될 각종 대안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칫 연구원에서 마련해야 할 각종 대안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연구 결과를 통해 마련된 공식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한다면 통합 논의가 원성되기도 전에 광주·전남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철저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양 시도의 수용성이 있는 결과물이 도출돼 시도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 논의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양 시도는 본격적인 공론화 이전 시기에는 관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 정부도 시도 간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정 지원 등 지방 분권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社說

감기 증상 있으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로

코로나19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순천 지역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다. 방역 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 이후 2단계로의 격상은 순천이 전국 최초다.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목포·나주 등 곳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광주 600여 명, 전남 300여 명으로 모두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따금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라는 점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 기상청은 일부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리는 등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으레 감기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며 일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감증을 수 없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1주일 전부터 증세가 있었지만, 목감기나 몸살로 오인하고 의원(병원) 세 군대를 돌면서 감기약만 복용한 사례가 순천에서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증세가 몸살, 발열, 근육통, 목 감짐 등 감기 증세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전파력이 가장 왕성한 증세 발현 후 3-5일 동안 일상생활을 할 경우 이미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증세가 있으면 즉각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검사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도심 생태 습지’ 진월저수지 꼭 메워야 하나

광주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일부를 메워 축구장 등을 갖춘 복합 운동장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립에 찬성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생태 및 환경 효과를 고려해 보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남구는 최근 진월동 140번지 일대에 '진월 복합 운동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월저수지 일부를 매립해 축구·야구·풋살 등의 경기를 할 수 있는 2만 2000㎡ 규모의 운동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남구는 당초 저수지는 그대로 두고 축구장 한 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인근 이파르로부터 야간 조명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계획을 변경했다. 여기에는 원래 농업용이었던 저수지가 현재는 비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과 저수지 나머지 부분을 수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이 일대 18만여㎡가 애초 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당시(2009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월저수지 보전을 전제조건으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열섬 완화와 홍수 시 호우 피해 저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는 점 등 저수지의 다양한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광주에는 경양방죽이라는 대표적인 자연 공간이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태풍상을 holes 매립한 이후 복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번 훼손된 자연 환경을 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운천저수지 역시 금호·상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이후 악취 등의 문제로 매립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자연생태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다. 남구는 이런 점을 감안해 도심 속 습지인 진월저수지 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설가 정찬주가 쓴 '법정 스님의 뒷모습' (2018)은 재가 제자로서 스님과의 인연을 담은 산문집이다. 작가는 평소 법문과 일치했던 스님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한번은 스님께서 국수를 끓이시고 설거지 당번을 맡았을 때다. 삶은 국수를 불일암 우물가로 가져가 찬물에 행구어 식히던 중에, 꼬들꼬들해진 국수 몇 가닥이 우물 밖으로 넘쳐흐르는 물에 떨어졌다. 순간 스님께서 망설임 없이 국숫발을 주워 드시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진정한 수행자란 상담이나 해 주는 카운슬러가 아니라

는 표정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래 모습일 것이다.

최근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한 뒤로 '풀(full) 소유' 논란에 휩싸였던 해민 스님이 참회의 뜻을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프린스턴대 종교학 박사 등 여느 스님들과는 다른 이력과 배경은 작금의 '풀소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 발간한 명상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사람들의 실망 또한 적지 않았다.

무소유와 '풀소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님 또한 소유 문제를 제 자유로울 수 없을 테.

그 설명 없이 행동으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물가에 떨어진 국숫발은 '신도가 수행 잘하라고 보내 준 정제(淨捰捰은 재물)'였던 것이다. 입적 후 처리된 스님의 장례식은 아직도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 있다. 대부분 고승들이 꽃을 장식한 운구차에 몸을 실은 데 비해 스님을 덮은 것은 오로지 가사 한 장뿐이었다. 스님의 유언인 '무소유 정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장면이다. 사람의 뒷모습에는 감출 수 없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